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82 | 2025년 10월

집을 잃고. 핍박 받고. 혼자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신자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칼럼

-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주는 교훈

어라이즈 아프리카

-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 희망의 빛줄기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 인터뷰 - 에티오피아

Heart To Heart

-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 기자회견
- 현장스토리 (베트남 여성 성경캠프)
- 2025 WWL 순회발표를 마치며
- 오픈도어 기도학교 공개강좌
- IDOP (국제기도의 날)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박해와 선교현장

- 모리타니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10월호 | 통권 282호 |
등록번호-증량,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김다운

민태홍, 유진영, 민찬양, 신예은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송레아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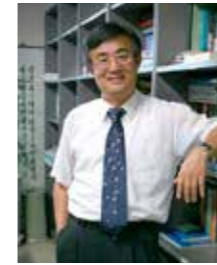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 03 칼럼 -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롯 유다의 배신이 주는 교훈
- 06 어라이즈 아프리카
-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 희망의 빛줄기
- 12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 인터뷰 - 에티오피아
- 16 Heart To Heart
-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 기자회견
- 현장스토리 (베트남 여름 성경캠프)
- 2025 WWL 순회발표를 마치며
- 오픈도어 기도학교 공개강좌
- IDOP (국제기도의 날)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22 박해와 선교현장 - 모리타니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롯 유다의 배신이 주는 교훈

김성태 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갈릴리호숫가 빈들에서 남성 장정만 5천 명 이상이고,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 넘는 무리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군중은 흥분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중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모든 약한 부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며 축귀의 기적을 통해서 확신한바 로마의 압제에서 능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세상에서의 구세주 왕이 되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헛된 망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요,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군중들이 기대한 바처럼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성취하고,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탄과 마귀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된 타락한 죄인을 구출하시고,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대속과 화목의 제물이 되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요, 사랑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을 대신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처럼 채찍을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온갖 능욕을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면 부활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길도 없습니다. 그의 부활은 죄의 근원 세력인 사망과 사탄의 지배를 종식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죄인에게 죄 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순종을 통한 죄인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드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를 보이며 자신을 섬기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빈들에서는 군중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동일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의 시험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부분적으로 가롯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불의의 씨를 심음으로써 성공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수종 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었다면 사탄과 마귀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멈추게 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계6:9-11)" 사탄과 마귀는 자신의 추종 세력인 악인들을 통해서 모든 무도하고, 간교하며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교인들을 대적하며, 핍박하고, 죽이는 살육을 멈추지 않습

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악인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설적인 도구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재촉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한류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며 거기에 종교문서와 자료들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활용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회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위층 자녀들이 주로 공부하는 북한 최고의 공과대학에서 한류 드라마를 보급했다는 죄목으로 x명의 젊은이들이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의 젊은 세대 가운데 한류의 영향력이 근절되지 않음으로 고위층의 자녀까지도 본보기로 삼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는 행위입니다. 양강도의 개마고원 일대 xx 군내에서 금년 4월 부활절 기간을 맞이하여 그루터기 비밀 신자 20여 가정이 늘 해왔던 대로 산나물이나 약초 채취 명분으로 산중 깊숙한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모두가 체포당하고, 공개총살형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외부 소식이 북한 주민에게 전파되고, 기독교가 확산하는 것에 대한 거의 노이로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삼국에서 특정 선교회의 명칭을 걸고, 한국의 카톡처럼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거기에 단톡방을 개설하는 수백 명의 북한 여성에게 10가지 조항의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답변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준다는

유인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삼국의 이 인터넷 매체는 현지 공안 당국이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서로 간에 의지하며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톡방을 만들고, 사용하고 있지만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상당히 제한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매체에 탈북동포 구출로 잘 알려진 특정 선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인책을 주면서까지 설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북한 여성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행태입니다. 거기다가 설문 내용이 이미 정해진 답변을 유도하는 단순한 질문이며 의도와 관점이 불신앙적이며 교회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위험한 행동을 조직적으로 하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기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복음화는 북한 교인들의 믿음과 희생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때가 되면 큰 나무가 되고, 가지를 펼쳐서 공중의 새가 그 가지 위에 깃드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이 땅 위에서 맺어질 것입니다.



IDOP(국제기도의 날)

2025년 11월 2일,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시편46:1 -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홍수와 산불, 지진과 전염병이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전 세계 3억 8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과 폭력, 차별과 따돌림, 납치와 성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96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매년 11월 첫째 주를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마음을 모아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제기도의 날은 올해로 어느덧 30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기도운동을 함께 하는 중요한 파트

너입니다. 오픈도어 설립자인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199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에서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섬긴 것을 인정 받아 종교자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수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저희는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도록 독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그들의 고난에 함께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25년 11월 2일 국제기도의 날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가 안내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opendoors.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96-3171, 임훈희간사





ARISE AFRICA

어라이즈 아프리카

잣더미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로 인해 집을 잃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모든 것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불을 붙였어요. 단 하루 만에 우리 마을이 잣더미로 변했어요.”

제말*은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단 하루. 그 짧은 시간에 집과 수십 년간 일궈온 일터를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이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만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폭도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마을에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곳에서 기독교를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끔찍한 이야기가 에티오피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단 사진: 제말과 아내 파티마*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좌측 사진: 제말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그의 집이 불타는 사진이요.

교회가 불타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6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잃고 강제로 쫓겨났으며, 많은 이들이 거대한 난민 캠프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성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공동체가 그녀들을 배척한다는 점입니다. 남성들은 가정을 지키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장 세력에게 집과 생업을 파괴당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가족들이 굶주리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공격 방식은 다르지만, 그 끝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현장 연구자인 피키루(Fikiru)*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은 이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자신들이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막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말(Jemal)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기독교인들의 회복을 돕는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두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약 1,700명의 신자가 성폭력이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최소 7,100개 이상의 기독교인 상점과 사업장이 파괴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적 불안정과 취약한 치안으로 무장 세력은 거침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교회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아라이즈 아프리카 (ARISE AFRICA)

2023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오픈도어는 아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 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89만 명의 신자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4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정서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박해에 전 세계가 주목하도록 백만 청원과 기도를 모으고자 합니다.

*제말과 가족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지만,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말과 같은 신자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집이 불타 잿더미가 된 후, 제말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옆 마을의 교회까지 걸어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버려진 건물 바닥에서 함께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고 난 후 그들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옛 마을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옛 마을로 돌아온 제말은 눈물을 꼭 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 머물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잃은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긴급 구호와 트라우마 치유, 생계지원 등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이 땅의 제말과 같은 이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말은 고백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고, 이 세상은 변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바라는 거예요.”

*이름은 신변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흠뻑 위에 다시 세워지는 희망

제말의 회복 이야기 영상 보러가기
(QR 코드 스캔)





ARISE AFRICA

어라이즈 아프리카

희망의 빛줄기

목사 바나바가 전하는 고백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로 인해 가족과 함께 집을 떠나게 된 바나바 목사는 난민 캠프에 머물며 힘겹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비롯한 구호 물품이 전달되었습니다. 구호 물품은 이곳의 12만 4천 가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픈도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살아남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돌봐 줬어요. 굶주리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희에게 구호물품을 줬고 친형제자매처럼 잘 대해줬어요.”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54만 5천 명의 신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긴급 구호뿐 아니라 트라우마 치유, 교육, 직업 훈련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외면하고 있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빛을 비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문을 닫은 학교가 1만 4천 곳이 넘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지난해 3천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학비와 교복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며 아이들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리와 나이지리아의 700여명의 청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세상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케냐에서 열린 오픈도어 국제회의에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 기독교 단체, 각국 정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중

교적 신념의 자유를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들이 박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 중 한명인 변호사 이브라힘*은 회의 이후 자국에서 ‘기독교인 변호사 연합’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큰 성공이었어요. 예전에는 저 혼자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싸웠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 내 난민 기독교인들을 다룬 보고서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No Road Home)》는 유럽 연합과 유엔 정치인들의 주목을 받았고, 영국에서는 15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494,901

2024년 한 해 동안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수

545,098

2024년 한 해 동안 오픈도어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현지 기독교인들의 수

890,000

2년(2023~2024) 간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누적 합계

2,720,000

2024년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통해 직·간접적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총합



감사의 인사

어라이즈 아프리카 지도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빛줄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전 세계 교회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폭력적 박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에 후원의 손길이 당기를 기도합니다.
- 전 세계 교회가 깨어나 하나 되어, 이 위기를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기를 기도합니다.
- 각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름은 보안을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 인터뷰 에티오피아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키루(Fikiru)*입니다. 오픈도어 동아프리카 지역 현장 연구가로, 오랜 세월 이 사역에 헌신해 왔습니다. 오픈도어가 하는 사역, 즉 고통받는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Q. 왜 동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가요?

동아프리카에서 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폭력이 발생하는 나라는 특정 몇몇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수단은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에서 순위가 8위에서 5위로 상승했습니다. 에리트레아는 수십 년째 상위 10위 안에 들고 있고, 소말리아는 항상 상위 5위 안에 듭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단에서는 계속해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에티오피아에서는 국경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수년간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무법과 불안정은 박해자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폭력을 행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지역의 기회주의적 정치 지도자들은 박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조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박해자들은 이 '틈'을 이용해 신자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다. 기독교를 근절하고 이슬람 체제로 되돌릴 때다."



Q. 이 폭력이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해자들은 기독교인을 특정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독교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이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막기 위해 박해를 가합니다. 특히 와하비즘(이슬람 근본주의 한 형태)은 에티오피아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모잠비크, 또 수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동아프리카에는 지난 수십 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Q. 왜 동아프리카에서는 남성들이 박해의 주요 표적이 되는 건가요?

박해자들은 남성을 공격하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없앨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가정의 보호자로 여겨지는데, 박해자들은 남성을 공격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남편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다면, 아내와 자녀들도 뒤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남성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을 공격하면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자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습니다.

Q. 박해가 남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남성들은 박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곳에 남아 견디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는 게 맞을까?"라며 고민합니다. 이 고민 자체가 신앙 공동체 안의 남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제가 만난 박해받는 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 폭행 자체보다도, 이 내적 갈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친구나 동료들을 실망시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지역에서 남성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받은 신자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남성들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왜 세계는 동아프리카 교회를 향한 폭력에 주목하지 않을까요?

수년간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박해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도하던 동료들과 교회로부터 받는 오해가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와 이 지역의 박해받는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교회가 폭력적 박해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할 수록 교회가 살아남아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울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아프리카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에리트레아에서의 박해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말리아에서는 무려 3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이 이 상황에 지켜 더

이상 이 지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에리트레아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리트레아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전히 전 세계 신자들의 마음과 기도 속에 남아 있을까? 아직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박해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픈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는 지켜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기도와 관심,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혼자 아니라고 느끼길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Q. 국제 사회는 교회가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제 사회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 사실을 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에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욱 오래 지속되고 폭력적이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수백만 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는 정부와 박해자들에게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졌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황을 바로잡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Q. 전 세계의 교회는 에티오피아의 박해받는 교회와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에티오피아의 교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에티오피아의 교회들이 박해자들에게 증오가 아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주길 바라나요?”라고 물을 때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흘러 넘쳐서 박해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에티오피아 박해받는 교회와 손을 맞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주세요

- 이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 교회가 박해자들에게 증오가 아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 기자회견

지난 9월 2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사무실에서 '어라이즈 아프리카(Arise Africa) 캠페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 박해 문제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기도와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여러 기독교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날 김경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Sub-Saharan Africa)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폭력과 박해의 실태를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세계 곳곳에서 신앙을 이유로 폭력과 차별을 겪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가장 심각한 위기 지역"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불타고, 신앙을 지키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00만 청원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1,7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 4,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각 가정과 공동체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줍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2만 명이 '100만 청원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최소 2만 명 이상의 한국 성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의 참여는 단순한 숫자적 의미를 넘어 아프리카 현지 교회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청원신청

지금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을 비롯한 1,600만 명이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보호: 무장 세력의 무분별한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

정의: 폭력을 자행한 이들을 반드시 기소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

회복: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공동체를 위로하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청원 신청하기]

오픈도어는 이 행동 촉구문을 2026년 말에 아프리카연합(the African Union)과 유엔, 기타 국제 기구 및 세계 각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후원해주세요

- 5만원: 극심한 박해를 겪은 한 그리스도인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합니다.
- 8만원: 아프리카의 네 명의 신자에게 한 달간 음식, 주거, 의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2만원: 박해받는 한 신자가 사업을 시작하고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후원 방법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어라이즈 아프리카



[자동이체 신청하기]

일시 후원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901-884982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 명에 '어라이즈 아프리카'를 기록해 주세요.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현장스토리

베트남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는 여름 성경캠프

오픈도어와 협력하는 베트남 해안 지역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 여름 성경캠프가 열렸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소수민족 청소년 86명이 함께했는데, 이러한 규모의 캠프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몇몇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지역 오픈도어 협력 목회자는 “우리는 밤에만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참가자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지내야 했지요.”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주제는 청소년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농촌과 해안 지역의 아이들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듭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일찍부터 일을 하러 나가야 하고, 여자 아이들의 경우 조혼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청소년을 양육하는 일은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지도자들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종종 고립감을 느끼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베트남의 교회들은 청소년을 위한 여름 성경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도시 지역의 교회들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만, 시골 지역 교회들은 자원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캠프를 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연합 행사 등 보다 큰 규모의 행사에 보내어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생활 기술 워크숍, 성경 퀴즈, 캠프파이어, 기도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우정을 쌓고, 꼭 필요한 기술을 배우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간증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린은 이번 캠프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배움을 얻었습니다. 린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어요.”

캠프가 끝난 뒤 학생들은 더욱 굳건해진 믿음과 깊어진 사명 의식을 안고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소극적이고 주저하던 많은 소수민족 청소년들이 이제는 담대히 믿음을 표현하며 토론에 참여하고, 기도를 인도하며, 어린 아이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뚜렷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캠프 리더들은 후원자분들과 기도 동역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찌우(Chau)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이들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 오지에 있는 교회들도 점차 독립적으로 여름 성경캠프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전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소수민족 청소년들을 캠프 이후에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Heart To Heart

2025 WWL 순회발표를 마치며

지난 3월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김제, 광주, 부산을 거쳐 지난달 원주에서 마지막 순회발표를 마치며, 2025 월드와치리스트(WWL) 순회발표회의 여정이 은혜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순회발표를 통해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오픈도어는 이번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진행된 발표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회가 진행되는 동안 폭우를 비롯해 여러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발표회 장소를 기꺼이 제공해 주신 교회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봉사와 식사로 섬겨주신 많은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이번 순회발표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순회발표는 단순한 보고회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의 실상이 소개되었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들려온 생생한 증언과 통계는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이번 순회발표회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연대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설명회 참가자 후기

이번 오픈도어 선교회의 부산지역 발표회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백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폭력적인 박해를 받고 추방당하고 있지만 뉴스도 정치인들도 정부도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또 살인과 폭력을 경험한 몇몇 사람들의 증언 영상을 보았는데 마음이 너무 저리고 아팠습니다.

비닐텐트 난민촌에서 찬양하는 모습,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를 당한 아이 레아가 신앙을 부인 하지 않고 납치 당한 그 곳에 남아 있는것을 보며 복음의 능력과 담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아의 믿음의 결단을 보며 경기악화로 인해 처한 현실에 조금은 낙담하고 있던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소망을 갖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북녘땅과 탈북민들에게 향해 있었는데 이번 발표회를 접하면서 저의 시선을 북녘을 넘어 더 멀리 더 크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북녘의 영혼들을 통해 열방선교를 이루실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 인명희, 수영로교회 주빌리 기도회 간사

여러가지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기도 책자와 팸플릿이 보조 자료로 전시되어 배포되었다. 50일간 박해지수 높은 50개국을 위해 기도하는 책자를 가져왔다. 매일 5개국씩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조카 룯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땅과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기도로 보고 기도로 밟는 땅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박해 받는 땅을 위해 기도로 보고 밟으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은퇴 이후의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과 여러가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보여주신 그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박해국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구원 받으며 열방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려한다. 오픈도어를 통해 새로운 사명으로 눈 뜨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박미경, 수영로 교회 권사

*지면 제약으로 축약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0월 21일 오픈도어 기도학교 공개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학교의 목적

오픈도어의 핵심가치로 무장한 기도용사 30명을 세워 전 세계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지역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훈련합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선교적 연대**
- 오픈도어 사역현장과 **선교전략의 깊은 이해**
- **브라더 앤드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의 부르심

오픈도어 기도학교가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용사를 세운다'는 기치 아래 9월 9일 시작되었습니다. 12주 과정으로 1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도학교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약 2시간 20분 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짜	핵심 주제	사역 이해
9월 9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One Million Prayer
9월 16일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Arise Africa
9월 23일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Deaf Community
9월 30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1)	Displaced People
10월 7일	추석 연휴 / 기도회 인도 실습 1	
10월 14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Secret Believers
10월 21일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한다	Project Pearl
10월 28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World Watch List
11월 4일	하나님의 밀수꾼 (2)	Persecuted Woman
11월 11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STS / IPM / SED
11월 18일	휴식 / 기도회 인도 실습 2	
11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 (3)	오픈도어 선교전략 이해

10월 21일 공개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1일 저녁 7시 20분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한다'는 주제로 공개강좌가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강좌에서는 **오픈도어가 1981년 중국에 1백만 권의 성경을 전달한 '진주 작전(Project Pearl)'에 대해** 다룹니다. 이번 강좌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02-596-3171 /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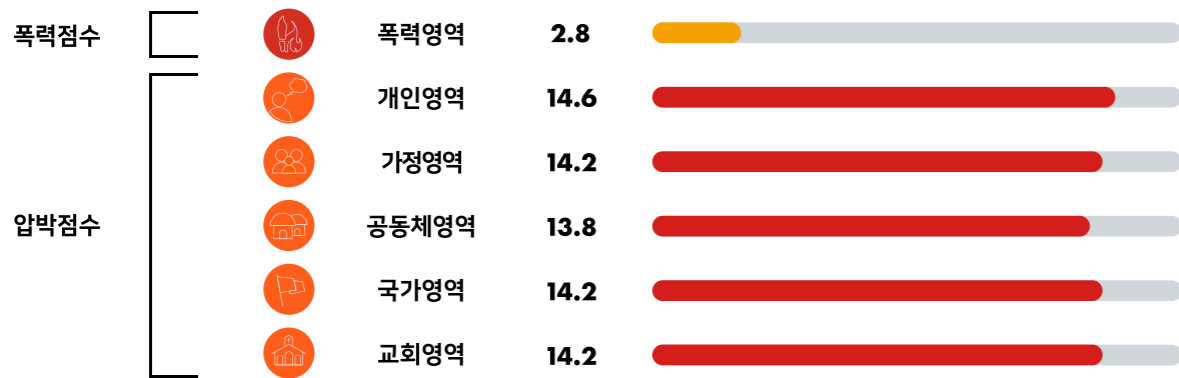
모리타니 (MAURITANIA)

23위

기독교 박해지수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직면한다. 이러한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이들은 공개적으로 종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을 포함한 비(非)모리타니 기독교인들의 신앙 표현 또한 이슬람 신자에 대한 개종 권유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투옥이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리타니 (Mauritania)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자우아니 대통령
 인구 : 4,994,000명
 기독교인 수 : 11,0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1,000	2.4
무슬림	4,956,000	95.8
민속종교	20,700	1.7
불가지론자	5,100	0.1

출처²

모리타니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문화는 전통적이고 부족 중심적이며, 노예 제도의 지속적인 관행은 사회적 분열과 반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백인 무어인과 베르베르는 아랍계 혈통인 반면, 하라틴(Haratin) 또는 흑인 무어인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노예는 아프리카계 혈통이다. 정치 및 경제 권력은 거의 전적으로 백인 무어인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대다수(70%)는 심각하게 소외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은 특히 동부 국경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무장세력이나 기타 범죄 집단에 의한 납치는 전국적으로 위험 요소이며, 특히 외국인에게 위험하지만 수도 누악쇼트(Nouakchott) 인근 서부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모리타니 국민 대부분은 수니파 무슬림이다.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개종 권유(포교)에 반대하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론상으로는 배교에 대한 처벌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미들 이스트 컨선(Middle East Concern)에 따르면, “모리타니 헌법은 이슬람을 국가 종교이자 국민의 종교로 명시하고 있다. 형법은 배교와 신성모독을 금지하고 있으며... 언론법은 비이슬람 종교 자료의 인쇄, 유통, 수입을 금지하지만 개인 소지는 불법이 아니다.”

모리타니의 기독교인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주로 인접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예: 세네갈, 기니비사우) 출신이다. 이들은 제한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모리타니 국민(모두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간주됨)을 대상으로 한 종교 활동은 철저히 금지된다. 세계기독교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base, WCD)에 따르면, 모리타니 내 기독교인의 다수는 로마 가톨릭 신자이다.

전체 내용 확인하기

전체 내용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opendoo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¹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